



〈씨 뿌리는 사람〉, 빈센트 반 고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마태 13,23)

[제1독서] 이사 55,10-11

[화답송] 시편 65(64),10-11,12-13,14
(◎ 루카 8,8)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2독서] 로마 8,18-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태 13,1-23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2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18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여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21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에 씨 뿌리는 사람은 한번 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씨나 씨가 뿌려진 땅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비유의 시작에 표현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씨, 곧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셨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입니다. 씨가 다양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은 다양한 우리에게 씨처럼 뿌려집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땅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씨는 이미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씨를 품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땅의 역할이고, 좋은 땅은 몇 배의 열매를 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옵니다. 씨가 열매를 맺듯, 우리 안에 뿌려진 하느님의 말씀도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언제나 유쾌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규 베네딕토 신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는 말씀, 씨가 떨어진 땅은 우리의 신앙 상태 상징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공관복음에서 모두 전해주는 내용이다.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위해 당시 이스라엘의 지형과 농경법을 아는 것이 도움된다.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래아 지역에는 이즈르엘 평야가 있다. 갈릴래아 호수는 해저 200m 정도에 있는데 이 호수 주변 지역은 높은 산악지형에 둘러싸여 있다. 갈릴래아 호수를 중심으로 남서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타보르 산이 있고 이 주변에는 이즈르엘 평야라는 큰 평지가 자리한다. 예수께서 주로 갈릴래아 호수와



▲ <씨 뿌리는 사람>, 반 고흐 작, 1888년

그 주변에서 활동을 주로 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 이즈르엘 평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우기가 시작되는 늦가을 즈음에 파종을 준비한다. 알려진 바로는 우선 씨를 땅에 뿌리고, 그 후에 밭을 간다고 한다. 미리 고랑을 만들고 거기에 파종을 하는 우리 농사법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간 후에는 씨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살짝 흙을 덮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들어 보아라”(마르 4.3)는 말로 비유를 시작하신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한다면 ‘너희는 들어라!’이다. 명령형이다. 그리고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지막을 보면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마르 4.9).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명령형이 사용된다.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특징은 ‘듣다’는 동사를 통해 이 비유를 시작하고 마친다는 점이다. ‘듣다’ 또는 ‘듣는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참조해 볼 내용이 있다.

“들어라!”는 표현은 우선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형식을 생각하게 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4-5)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바치던 기도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준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들어라!” 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신명기 말씀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이 구절은 우리에게 ‘듣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마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거꾸로 나열해 본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처럼 들린다. ‘듣는 것, 듣는 행위’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계시된 말씀을 듣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예수께서 강조한 제자의 덕목이기도 하다.

비유에 담긴 하나님 가르침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 것을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사람’이지만 정작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비유가 시작되자마자 ‘씨 뿌리는 사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씨’로 옮겨간다. “그가 씨를 뿌렸다.”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4.4)는 동일한 내용을 전해주는 루카 복음 8장 5절에서는 “짓밟히기도 하고”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다. 아마도 루카는 길 근처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기도 했다’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비유에 대한 직접적인 예수님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 가버린다.”(마르 4.13-14)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비유에 등장하는 씨는 말씀으로 그리고 씨가 뿌려진 다양한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드러난다. 길에 뿌려진 씨가 짓밟히고 새가 와서 먹어 치워서 땅에 싹을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루카 복음은 이것을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루카 복음의 표현대로라면 뿌려진 씨는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결국, 씨는 ‘구원의 씨’처럼 표현되고 있는 셈이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마르 4,5-6)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루카 복음은 ‘바위’라는 표현을 쓴다. 마치 뿌려진 씨가 돌 위에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것 같다. 사실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집회서에 나오는 가르침을 생각하게 한다. “불경한 자들의 자녀는 많은 썩을 내지 못하고 가파른 바위 위에 지저분한 뿌리를 내리리라.”(집회 40,15)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은 이렇다.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마르 4,16-17)

길에 대한 이야기와는 달리 돌밭은 일단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다.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잠시뿐이다. 성경에 “오래가지 못한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주 잠시뿐이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지고 만다”고 표현하는데 마르 9,42-47(다른 이를 죄지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동사는 ‘죄를 짓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환난과 박해”는 복음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는 작고 큰 박해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순교했다. 그리스도교가 공식으로 인정을 받기 전까지 이런 상황은 지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돌밭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믿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다. 씨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생활 안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외부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어려움은 ‘환난과 박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에 희망을 두지 못하고 쉽게 절망하는 모습일 것이다. 또 어쩌면 내게 도움이 될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저버리는 이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이들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저버리기도 한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마르 4,7)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다. 왜냐하면 길과 돌밭과 비교해 본다면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가시덤불’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으로 주님께서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혀 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마라.’”(예레 4,3)

가시덤불에 대한 해석은 이렇다. “말씀이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마르 4,18-19).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이들 안에서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들은 말씀을 통한 믿음보다 세상 걱정이 더 큰 사람들이고, 말씀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 재물에 더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대목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앙과 욕심 사이의 무게다.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인의 자세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욕심을 채우며 살 것인지,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신앙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결정한다.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마르 4,8)

마지막으로 나오는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는 비교적 간결하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 해설 역시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마르 4,20)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연적인 수확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유를 들은 우리들 역시 질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어떤 땅과 비교할 수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신학교 입학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과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 본당에서 두 명의 청년들이 신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곧 있을 신학교 입학과
앞으로의 긴 여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grats



이효빈 바오로(Paul Rhee)
John Paul II Seminary
(Washington DC)



이동한 다니엘 (Donghan Lee, Daniel)
Mt. St. Mary's Seminary
(Emmitsburg, MD)



교황청, 코로나19 비상사태 빈곤국 외채 감면 촉구

교황청 제네바 유엔사무국 및 유엔전문기구 상임 옵저버 이반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7월 2일 목요일 제67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는 개발도상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유례없는 도전 과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를 초래해 실업, 기업의 (공급망) 붕괴,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과 같은 잠재적 비극을 몰고 왔다. 교황청 제네바 유엔사무국 및 유엔전문기구 상임 옵저버 이반 유르코비츠(Ivan Jurković) 대주교는 제67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최빈국들을 강타한 심각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파괴적인 잠재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견딜 수 없는 부담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개발도상국들이 민간 혹은 공공 부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축적된 외채로 인한 막대한 압박에 직면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고려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탕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셨습니다.”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적 자본에의 투자, 가난한 이들을 위한 대출, 소비자 보호 등 포괄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경제)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더욱더 시급한 의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리의 위기

“당면한 이 위기의 원인은 경제·금융(의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윤리의 본질에 부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소유의 의미와 경제 윤리에 대한 우선 순위를 식별하면서 (빈곤국들의) 대응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대의 윤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과도한 자유화가 경제적 삶뿐만 아니라 인격적 삶과도 대립하면서 단기간의 이득을 선호하며 (자연)환경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잠재적 비극에 직면하기 위해 책임감에 바탕을 둔 강력한 윤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취약한 형제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가장 시급한 과제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한 보건위기에 대응하면서 경제위기의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금융체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금융(시장)에 또 다른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화를 구축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간을 돕는 경제와 더불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인간적인 진보를 위한 연대의 윤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5번째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으로 연설을 마쳤다. “지금은 무관심할 때가 아닙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일치를 이뤄야 할 때입니다. 가장 취약한 형제 자매들을 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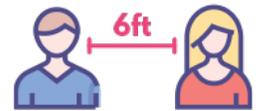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99.5°F 이상 입장 불가**)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한 방역과 환기를 위해서 입니다.)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감염 예방을 위해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유아세례 안내

-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아세례 대상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703-968-3010) 해주시면 시간을 정해서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미사 재개 (7월 7일부터)

- **7월 7일부터** 신자들과 함께 **평일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 수요일 : 오전 11시
 -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 ❖ 보다 안전하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7월 15일(수) 오전 6:15-6:45 | 7월 18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16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7월 16일(목) 오후 5:00-6:00

7월 17일(금) 저녁 8:00-9:00

7월 20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자신 꺼안기 1B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 등 아홉분의 순교자를 모시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의 구산성지